

RO
UND
PROJE
CT

RO UND PROJE CT

ARKO 도시공원 예술로 공공미술사업:
경남 함양 상림공원

라운드 프로젝트

Gallery FACTORY
Jahamun-ro 10-gil, 15, Jongno-gu
Seoul, Korea 110-034
+82 2 733 4883
galleryfactory@gmail.com
www.factory483.org



FACTORY

상림공원 소개

지정번호

천연기념물 제154호

지정일자

1962년 12월 3일

규모

면적21ha (연장1.6km, 폭80~200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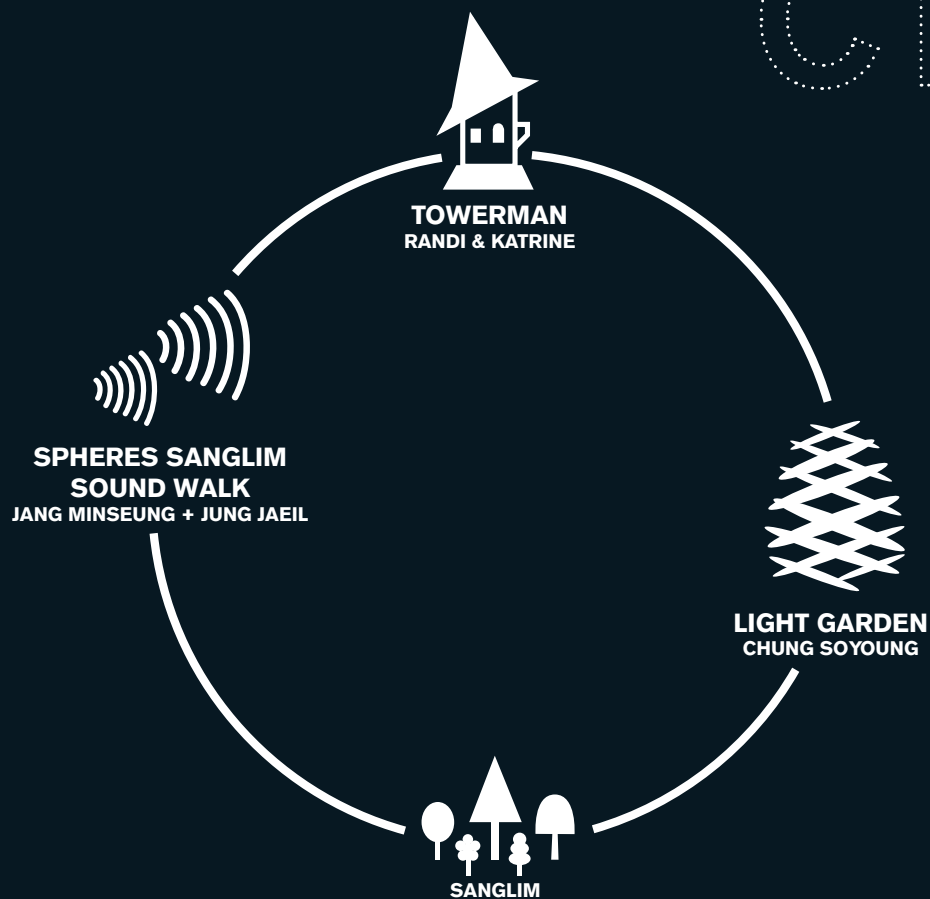
시대

신라 진성여왕때

주소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윤림리 349-1

ROUND PROJEC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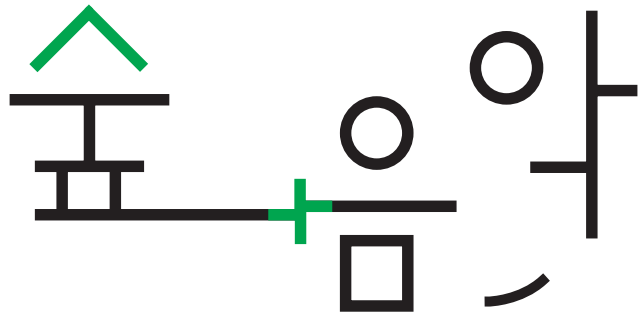
공동주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경상남도 함양군

주관 갤러리팩토리

장소 대한민국 경상남도 함양군 상림공원

〈라운드 프로젝트〉는 경상남도 함양에 위치한 상림공원 내의 상림숲과 연꽃공원(연지공원) 고운광장을 음악과 영상 및 조각 작품으로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공공미술 프로젝트이다. 상림공원의 중심에는 숲이 있다는 전제를 가지고 기획된 본 프로젝트는 숲을 중심으로 그 주변을 연결하는 예술 작품들을 통해 관람자의 공감각적 경험에 초점을 맞추는 일상 속 예술을 지향한다.

Round Project is a public art project in Hamyang, which aims through sound, video works and outdoor sculptures to connect Sanglim Park, Yunji Lotus Garden and Gowoon Park into a setting of organic integration. By understanding the forest as the centre of Sanglim Park, the project is curated to focus on the visitor's holistic experience with the art works, which embraces the surrounding areas into the visitors daily life.



스피어스 상림-소리산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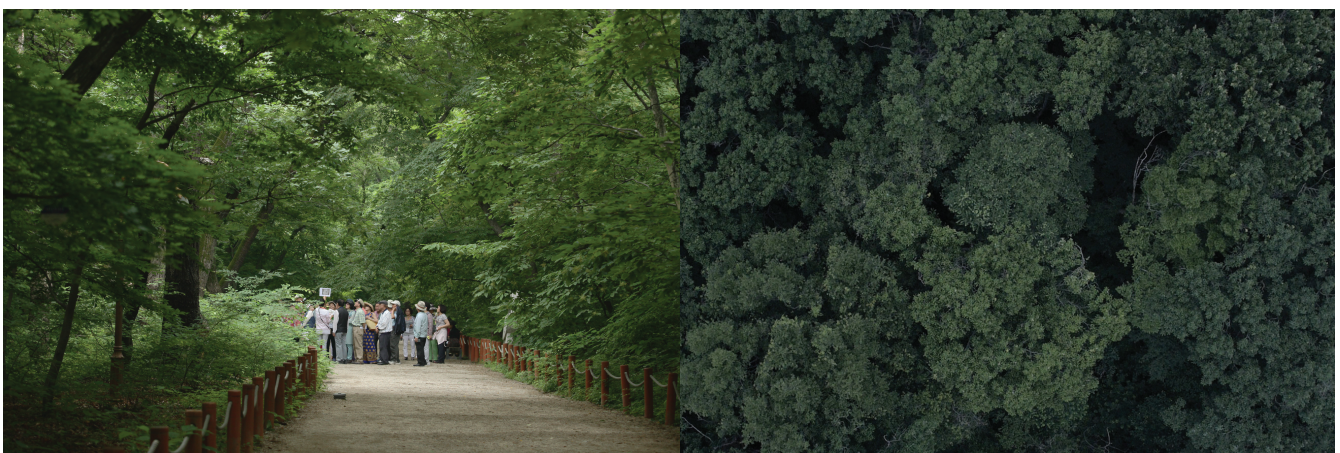
장민승+정재일

천년의 시간을 간직한 상림숲의 사계를 모티브로 장민승+정재일 작가는 창작 곡을 만들고, 함양 지역의 유소년 및 청소년으로 구성된 윈드오케스트라와 협업해 상림숲 안에서 연주하고 숲과 연주 장면으로 이루어진 영화를 만든다. 이렇게 만들어진 영화와 음악은 라운드 프로젝트 웹사이트를 통해 공유되며, '소리 산책'이라는 부제처럼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숲을 걸으며 특정 장소에서 연주된 곡들을 방문객들이 직접 재생하고 감상할 수 있다.

Spheres Sanglim - Sound Walk

Jang Minseung+Jung Jaeil

The project *Spheres Sanglim-Sound Walk* by Jang Minseung+Jung Jaeil takes place as a collaboration with the Wind Orchestra, which consists of local children and youths of Hamyang. Sanglim forest, the forest in which they play and film the music, contains a thousand years of cherished history. The original score of the music was inspired by the four seasons of the forest. The music and video are shared through the Web. As the subtitle Sound Walk implies, one is invited to walk through the woods where one can play and listen to the music, which was played on spots picked by the artis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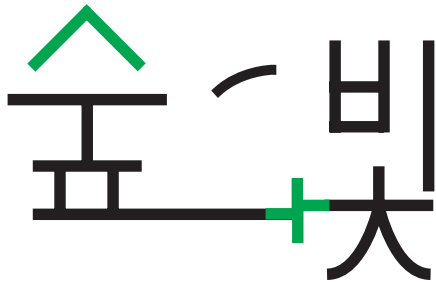


빛의 정원

정소영

2012년 문을 연 고운광장은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상림숲과 연지공원을 마주하고 마치 다른 시간 속에 태어난 숲과 같은 거울 이미지로 개념화 된다.

정소영 작가는 ‘빛’이라는 요소를 적극 끌어 들여 고운광장에 솔방울, 나뭇가지, 별과 하늘이라는 자연의 요소를 재현한 일련의 조각 작품을 만든다. 빛방울, 별 벤치, 하늘 만화경과 방울나무라는 이름의 조형물과 함께 고운 광장은 또 다른 형태의 숲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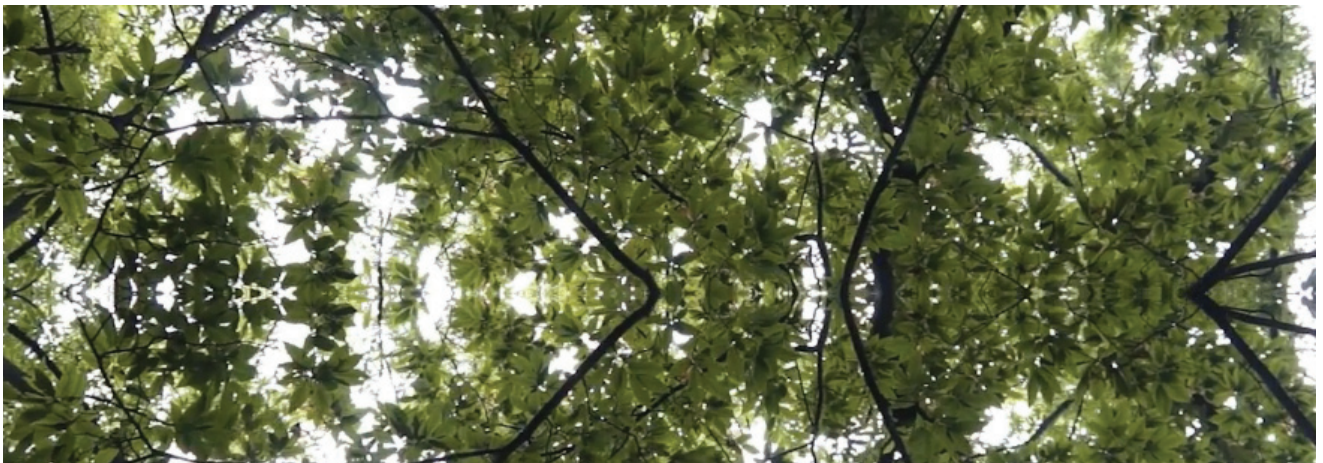


Light Garden

Chung Soyoung

Gowoon Park opened its gates in 2012. Situated opposed to Sanglim and Yunji Lotus Garden, Gowoon Park faces the two older parks, as if one is looking into a different time zone.

Chung Soyoung actively introduces the element of light and creates, within the contrast between the parks, all kinds of sculptures that reproduce natural elements such as pine cones, tree branches, stars and the sky. Soyoung's sculptures are titled: *Light Drop*, *Star Bench*, *Sky Kaleidoscope* and *Bell Tree*. With these additions, Gowoon Park is reborn into a new kind of forest.



숲사람

타워맨

란디 앤 카트린

중세 유럽의 교회 건물을 의인화하여 만든 타워맨은 덴마크의 듀오 작가 란디&카트린의 작업이다. 타워맨은 2012년 3월 이후 서울의 다양한 공간에서 전시를 마치고 비로소 함양 상림공원에서 긴 여정을 마무리하게 된다. 목재로 만들어진 타워맨은 숲과 자연스럽게 어우러지고 관람객들을 친근하게 맞이하며 숲과 사람을 이어 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

Towerman

Randi & Katrine

Towerman by the Danish duo artists Randi & Katrine, is a personification of medieval european architecture. After being exhibited in various exhibitions around Seoul Since March 2012, Towerman will finally settle down at the entrance of Sanglim Park. The wooden sculpture in the midst of a forest will welcome the visitors and perform the role of the bridge between human and forest.



ROUND PROJECT

경남 함양 상림공원

함양은 웅장하면서 깊은 산세를 자랑하는 덕유산 남쪽 자락에 위치한 지역이다. 예로부터 맑은 물이 흐르는 계곡을 따라 펼쳐지는 절경은 함양의 자랑이며 팔당팔정을 비롯하여 용추계곡, 정여창 고택, 상림 등은 잘 알려진 관광지이다. 이 중 상림은 함양읍을 에워싸고 있는 숲이다. 신라 시대 때 고운 최치원 선생이 홍수의 피해를 막기 위해 강물을 지금의 위치로 돌리고 강변에 독을 쌓고 그 독을 따라 나무를 심어 숲을 조성했다는 상림은 역사적으로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인공림이다. 당시에는 대관림이라 불리었으며 규모가 지금보다 더 컸으나 이후 중간 부분이 파괴되어 상림과 하림으로 갈라졌다. 현재 하림 구간은 모두 훼손되어 상림만이 옛날 그대로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

천 년의 시간을 간직한 숲이라는 역사적 가치를 지닌 상림은 우리나라 천연기념물 제154호로 지정, 관리되고 있다. 2만여 종의 식물들로 어우러진 숲은 마치 인공림이라기 보다는 원시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다. 깊고 울창한 숲을 따라 조성된 산책로와 사계절에 따라 바뀌는 빼어난 경치는 많은 사람들의 발길을 이끌며 찾아오는 이들의 마음 속에 긴 여운을 남긴다.

www.round-hamyang.org

Photography by 장민승, 김준성, 노혜정, 이대범

